

# 국제유가·정제마진 지속 하락 정유업계, 3분기 실적 '적신호'

경기위축 영향... 中 수요 위축  
업계, SAF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  
"비정유 부문 통해 수익성 강화"

최근 경기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정유업계의 3분기 실적이 어둡다. 지난 2분기 실적 부진을 겪은 데 이어 정제마진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지난 6일 기준 배럴당 73.43달러로 지난 8월 평균 77.60달러보다 약 4%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유(WTI) 가격 또한 지난 6일 기준 배럴당 67.67달러로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로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브렌트유 가격도 전 거래일 대비 2.24% 급락한 71.06달러에 마감했다.

통상 유가 하락은 정유사들에 악재로 작용한다. 정유사는 원유 도입부터 제품판매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비축분 원유에 대한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유사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인 정제마진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

해 정유사들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월 마지막주 평균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은 전주대비 10% 하락한 배럴당 6.7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7월 평균 8.4달러를 기록했던 정제마진이 다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정제마진은 석유 제품 판매가격에서 원유가·운임 등 비용을 빼고 정유사가 얻는 순수익이다. 통상 정제마진이 4~5달러일 때 손익분기점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높은 정제설비 가동률과 중국 수요 둔화로 휘발유·경유 중심으로 정제마진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분기에는 정제마진이 손익분기점을 밑돌아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이크게 감소했다. SK이노베이션 석유사업은 2분기 영업이익 1442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분기 대비 75.6% 감소한 것이다. 에스오일과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도 정유사업 부문에서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3분기 여름 성수기를 맞아 실적 반등을 기대했으나,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이 하락하는 등 악재로 인해 실적 개선이 어려울 전망이다. 3분기는 여름휴가 등으로 이동용 연료 수요가 늘어가는 시기로 2분기와 함께 정유업계의 성수기로 꼽혔으나, 기대

에 미치지 못해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정유사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나서는 불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한 연료가 국제선 정기노선에 처음 투입된 데 이어, 정유사들은 SAF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에쓰오일은 인천국제공항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정기 운항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SAF를 주 1회 공급한다.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 SAF 전용 생산시설 건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일본 ANA항공에서 사용되는 SAF를 일본 트레이딩회사인 마루베니를 통해 공급한다. SK이노베이션 또한 SK울산 콤플렉스(C LX)에 SAF 설비를 구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S칼텍스도 지난 2023년 9월부터 대한항공과 SAF 실증운항을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정제마진의 하락세로 3분기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정유 부문의 성장을 통해 수익성을 다각화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G에너지솔루션 'RE+ 2024' 전시 부스 조감도 전면 / LG에너지솔루션

## LG엔솔, 'JF2 셀' 적용 신제품 공개 (고용량 LFP 롱셀)

RE+ 2024 ESS 제품·기술력 소개

LG에너지솔루션이 북미 시장 내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신 ESS 제품 및 기술력을 선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북미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RE+(Renewable Energy Plus) 2024'에 '미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다'라는 주제로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시장 중앙에 고용량 LFP 롱셀 'JF2 셀'이 적용된 컨테이너형 모듈 제품 'New Modularized Solutions(JF2 AC/DC LINK 5.1)'의 실제 제품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오는 2025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 예정인 이 제품은 전력변환장치(PCS)가 내장된 AC 타입과 고객이 별도의 전력변환장치를 선택할 수 있는 DC 타입 중 선택이 가능하다. 3.4MWh(메가와트시)의 배터리 시스템에 1.7MWh 배터리 시스템을 연결하여 최대 5.1MWh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모듈식 제품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 등에 따라 맞춤형 제품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탑재된 JF2 셀은 이전 모델 대비 에너지 밀도가 약 21% 가량 향상되었고, 수냉식 형태로 최적의 시스템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제품이 모두

조립된 완성형으로 고객에게 전달돼 설치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는 것도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이 밖에도 ▲북미 네트워크 ▲전력망용 ▲산업용 ▲UPS(무정전 전원장치) ▲주택용 등으로 전시 부스를 구성해 핵심 제품들을 전시했다. 우선 북미 네트워크 존에서는 12년 이상 쌓아온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ESS LFP 배터리의 내년 미국 생산 계획을 소개했다.

산업용 존에서는 학교, 공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전기 비용 절감을 돕고, 비상시 필요 전력을 제공하는 산업용 ESS 제품을 선보였다.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UPS(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도 전시했다. 주택용 존에서는 'enblock S+' 등을 전시했다. 이 제품은 모듈식으로 쌓는 NCM 기반의 'enblock S' ESS 배터리, 인버터와 자동 백업 장치 등을 통합한 올인원 솔루션이다.

LG에너지솔루션 ESS 사업부장 김형식 상무는 "현지 생산 역량 및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향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북미 시장에서 앞선 시장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 제공

YouTube

## 완성차 5社, 임단협 막바지... 르노만 남아

르노코리아, 교섭일정도 확정 못 해  
생산 차질시 신차효과 치명적 영향

국내 완성차 5사(현대차·기아·한국GM·KGM·르노코리아) 중 르노코리아만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이지연되고 있다.

현대차를 시작으로 한국GM, KGM, 기아까지 노사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을 선택한 가운데 르노코리아는 여전히 임단협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해 4년 만에 선보인 신차 '그랑 콜레오스'를 출시하며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지만 노사간 갈등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위기감은 확산될 수 있어 업계 관심이 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 노조는 지난 6일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

에 대한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다. 총 185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01명(64.8%)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관련 르노코리아 노조는 이번 주에 긴급 임시총대의원대회를 열어 현재 임단협 상황을 진단한다는 입장이다.

르노코리아 노사의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3000원 인상, 콜레오스 신차 출시 격려금 300만원 등이 담겼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향후 교섭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2차 잠정 합의안 도출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전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르노코리아는 그동안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9월 부터 판매에 돌입한 그랑 콜레오스의 생산량 확보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그랑 콜레오스

는 누적 사전 예약대수가 1만 7000여대를 넘어설 정도로 중형 SUV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만약 생산량 차질에 따른 인도 시기가 늦어질 경우 소비자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르노코리아가 4년 만에 출시한 신차에 대한 시장 반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타협점을 찾고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2년 연속 파업 없이 임단협을 마무리한 만큼 올해도 무파업으로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단협 갈등으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소비자 신뢰 하락과 함께 이달 현상도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기아는 지난 9일 경기도 오호랜드 광명에서 열린 9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대한전선, '대한쿠웨이트' 공장 준공

이달 중순부터 광통신 케이블 생산

대한전선이 광통신 케이블의 생산 현지화를 통해 글로벌 사업 확장에 나섰다.

대한전선은 쿠웨이트에서 '대한쿠웨이트(Taihan Kuwait)'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쿠웨이트 공장은 쿠웨이트시

티 남동쪽의 미나 압둘라 산업단지(Mina Abdulla Industry) 내 5000㎡(약 1500평)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공장에는 대한전선의 당진 케이블공장과 동일한 생산 설비와 시험 장비 등을 갖췄다.

대한쿠웨이트는 제품 인증이 마무리되는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대한전선이 지난 9일 쿠웨이트에서 '대한쿠웨이트(Taihan Kuwait)'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대한전선

## 최진식 "민간주도 성장, 필요불가결 가치"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기업계 간담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미래 성장 전략으로서 민간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가가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최 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 대표에게 "정부가 천명하고 여당이 뒷받침 해 온 민간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필요불가결한 가치에 완전히 공감한다"며 "민간의 핵심인 기업의 도전을 촉진하는 정책변화를 통해 기업이 살아야만 민생의 저변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 유연성 및 노란봉투법, 중대해해처벌법 등 기업 경쟁력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전향적으로 개선

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투자와 도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한 대표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린 중견기업계 간담회에는 한 대표 외에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해련 태경그룹 회장, 조시영 대창그룹 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추석을 앞두고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생을 실효적으로 다독일 해법은 무엇보다 훌쩍해진 지갑을 살찌우는 것"이라면서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상향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중견기업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